



장-뤽 낭시를 추도하며 I권

김상운 옮김
니시야마 유지 · 김상운 편집
장-뤽 낭시 · 자크 데리다 · 보안 만체프 · 가키나미 류스케 외 지음

장-뤽 낭시에게서 철학의 박동

Pulsations philosophiques chez Jean-Luc Nancy

월간 멀티튜드
multitude.co.kr

일러두기

1. 이 책은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1권은 니시아마 유지(西山雄二)가 편집한 『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ーの哲学の拍動』, 『人文学報 フランス文学』, 2017년 3월로 이루어져 있으며, 2권은 장-뤽 낭시의 몇몇 글, 인터뷰, 그에 대한 여러 논의 등을 김상운이 선집하고 번역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2. 1권과 2권에서 일본인 저자의 글을 번역할 때 낭시나 데리다의 글들은 원문과 대조하여 새롭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각주에 따로 붙여두기도 했다. 인용문의 원문을 입수할 수 없을 때는 영역본, 이탈리아 번역본 등도 참조했다.
3. 비일본인 저자가 쓴 글은 원문을 입수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번역했다. 이때는 낭시나 데리다 글의 인용문을 각주에 따라 표기하지 않았다. 반면 원문을 입수할 수 없어서 일역본을 중역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인용문의 원문을 입수하여 새 번역본을 본문에 최대한 반영했고, 각주에 원문을 병기했다.
4. []는 이해를 위해 삽입한 구절이며, ()는 한국어 번역자의 첨언이거나 다른 번역이 가능할 경우, 경합하는 번역어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5. 번역어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일본식 한자는 모두 한국식 한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한 번역어가 등장할 경우, 필요한 대목에 옮긴이 주를 붙였다.
6. 낭시를 비롯한 데리다, 하이데거, 키르케고르 등의 인용문에 대한 참조에서, 한국어 번역본이 없고 일본어 번역본이 표기된 경우는 굳이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삭제했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허용합니다.

장-뤽 낭시를 추모하며 1권
: 장-뤽 낭시에게서의 철학의 박동

1판 1쇄, 2021년 12월 1일

지은이, 장-뤽 낭시, 자크 데리다, 니시아마 유지 외
옮긴이, 김상운

비매품

/ 1권 목차 /

들어가며 | 니시아마 유지 5

1. **키르케고르 : 장-뤽 낭시에게 묻다** | 장-뤽 낭시 9

2. **변신, 세계** | 장-뤽 낭시, 보얀 만체프 39

3. **민주주의의 집요함**

: **미겔 아방수르, 장-뤽 낭시,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 미겔 아방수르, 장-뤽 낭시, 자크 랑시에르 69

4. **낭시와의 대화, ‘기독교의 탈구축’을 둘러싸고** | 장-뤽 낭시, 올리비에 페터슈미트, 필립 롤바흐 103

5. **비연애론** | 가키나미 류스케 157

6. **시간, 자기촉발, 고유성**

: **초월론적 감성론에 관한 낭시와 데리다의 토론** | 이치카와 다카시 195

7. **근접과 대립 : 모리스 블랑쇼 『밝힐 수 없는 공동체』의 시련에 걸려 있는 자크 데리다와 장-뤽 낭시** | 지젤 베르크만 231

8. **세계의 욕망 : 장-뤽 낭시와 존재론적 에로스** | 보얀 만체프 259

9. **‘스스로 소묘하고 있는 것’**

: **네 가지 특징-선긋기에 의한 장-뤽 낭시의 〈감성학〉** | 지네트 미쇼 289

/ 2권 목차 /

10. 맑스와 철학 | 장-뤽 낭시
11. 주석 | 장-뤽 낭시
12. 낭시와 데리다의 만남 : 장-뤽 낭시의 「주석」에 대한 주석 | 이토 주니치로
13. 사고하는 것을 그는 뭐라 부르는가? : 낭시와 탈구축 | 지젤 베르크만
14. 헤겔적 군주의 재판권 | 장-뤽 낭시
15. 장-뤽 낭시의 ‘정치적 재판권’에 대해
: 「헤겔적 군주의 재판권」을 읽다 | 안도 레키
16. 형태들의/에 대한 욕망 | 장-뤽 낭시, 지네트 미쇼
17. 그늘[막]의 놀이 | 장-뤽 낭시
18. 장-뤽 낭시의 신체론 : 『코르푸스』 독해를 중심으로 | 가키나미 류스케
19. 장-뤽 낭시, 하이데거와의 끝이 없는 대화 | 사와다 나오
20. ‘파르타주’라는 말에 맡겨진 공존의 사상 | 마사모 시노부

들어가며

니시아마 유지(西山雄二, 首都大学東京)

2015년 11월 18-20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국제회의 「변전: 장-뤽 낭시를 둘러싸고[Mutations : autour de Jean-Luc Nancy]」가 개최됐다.¹⁾ 스트라스부르대학과 국제철학콜레주의 공동주최로, 회의장에는 연일 100명 정도가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유학중인 대학원이나 일본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 일본인 청중도 적지 않았다. 국제회의 직전인 11월 13일 파리에서 충격적인 동시 테러 사건이 터졌고, 범인 색출이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회의의 중지라는 선택지도 있었으나, 그저 단순히 회의를 취소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에 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때일수록 당당하게 함께 사고하자는 생각 아래서 실시됐다(다만, 프랑스 국외에서 오기로 했던 4명의 발표자는 테러의 영향으로 불참했기 때문에, 예정이 대폭 변경됐다).

프랑스에서 장-뤽 낭시를 다룬 대규모 국제회의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2년 1월, 낭시의 저작을 다룬 회의 「모든 방향의 의미」가 파리에서 개최됐고, 자크 데리다와 알랭 바디우, 카트린 말라부, 알렉스-가르시아 뒤트만 등의 저명한 철학자들이 토의를 벌였다. 그 기록집은 *Sens en tous sens : autour des travaux de Jean-Luc Nancy*(dir. Francis Guibal et Jean-Clet Martin,

1) 그 기록집은 *Les Cahiers philosophiques de Strasbourg*로 2017년에 간행됐다.

<https://journals.openedition.org/cps/359>

Galilé, 2004)으로 간행됐으며, 데리다와 낭시의 스릴 넘치는 대화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책임 : 도래할 의미에 대해(責任—来るべき意味について)」, 西山雄二·柿並良佑訳『水声通信』第10号).

두 번째는 2009년 1월 22-24일, 국제철학콜레주와 파리4대학(소르본)의 주최로 국제회의 「바깥의 형상: 장-뤽 낭시를 둘러싸고」가 파리에서 개최됐다. 주로 중견·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이고, 「정치와 그 타자」, 「세계의 의미와 창조」, 「복수의 탈구축」이라는 각 날짜별의 총 제목 아래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캐나다, 불가리아, 핀란드, 인도, 일본²⁾ 등에서 온 40명의 연구자가 등단했다. 그 기록집은 *Figures du dehors : autour de Jean-Luc Nancy*(dir. Gisèle Berkman et Danielle Cohen-Lévinas, Cecile Defaut, 2012)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의는, 낭시가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실시됐다. 이 기회에 낭시 특집호를 기획하자고 현장에 있던 신진 연구자들과 부푼 꿈을 품게 된 것이 본 특집호의 발단이다. 그 후,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学) 불문학 출신인 카키나미 류스케(柿並良佑) 씨(아마가타대학(山形大学) 강사)에게 협력을 의뢰하고, 게재 논고의 선별과 저자에게 게재 허가의 의뢰 등의 준비를 진행해 왔다. 오랫동안 낭시 연구에 종사해온 카키나미 씨의 온갖 노력이 없었다면 본 호는 이처럼 풍부한 내용이 못 되었을 것이다. 편집 협력에 있어서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장-뤽 낭시(1940년 생)는 데리다의 탈구축 사상을 계승하면서, 공동성과

2) 당초에는 유럽에서 온 참가자뿐이고, 일본인 발표자는 없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권의 낭시 번역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발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주최자와 교섭한 결과, 나와 馬場智一 씨의 참가가 최종 프로그램에 편입됐다.

기독교의 문제를 둘러싸고 독자적인 사유를 전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철학자이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절친인 라쿠-라바르트와 함께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있으며(현재는 동 대학의 명예교수), 지금까지 대소를 합쳐서 90여 권의 저작을 정력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공동체론 3부작인 『무위의 공동체』, 『공출현(공현)』, 『복수이자 단수인 존재』를 필두로 하여, 헤겔론인 『사변적 주석』, 『헤겔』, 칸트론인 『정언명령』, 라캉론인 『문자의 심급』 등의 사상가론, 『이미지의 심층에서』, 『초상화의 시선』 등의 철학적 미술론, 기독교의 철학적 고찰인 『신적인 장소들』, 『방문』, 『나를 만지지 마라』, 『탈폐쇄 : 기독교의 탈구축』, 『아드라시옹』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그의 저작은 세계적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일본어 번역도 스무권 이상을 센다. 본 특집호에서는, 그의 다채로운 연구를 둘러싸고, 특히 철학(공동체론, 세계론 등), 정치론, 종교론, 예술론에 관한 논고를 선별했다.

낭시의 일본어 잡지 특집으로는 『미래(未來)』 477호(2006년 8월호) 이후, 특집은 편성되지 않았다. 사와다 나옴澤田直, 『장뤽 낭시 : 분유를 위한 에튀드(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ー——分有のためのエチュード)』(白水社, 2013年)라는 뛰어난 개설서가 간행되고, 낭시의 사상에 대한 조감도를 주고 있다. 점점 더 정력적으로 전개되는 낭시의 사상을 일본의 독자가 이해하기 위한 안내도가 되기 바라면서 본 특집호를 편찬한 바 있다. 낭시는 1990년, 50세 때 심근경색 발작을 겪었으며, 이듬해에 심장의 장기이식을 받았다. 타자의 심장



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실존을 그는 소책자 『침입자』에서 적고 있다. 그런 실존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왕성한 사유활동을 기려, 본 특집호에서는 「장-뤽 낭시에게서 철학의 박동(Pulsations philosophiques chez Jean-Luc Nancy)」이라는 총 제목을 붙였다.

번역 텍스트에 관해서는, 낭시 본인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저자에게 번역 게재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의 아낌없는 협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싶다.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学の 이치카와 다카시市川崇 교수에게도 논문 집필을 의뢰했으며, 본 특집호를 위해 역작을 보내주셨다.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번역에 관해서는 특히 신진연구자들에게 의뢰했는데, 어떤 번역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번역 원고를 작성해주었다. 번역 원고에는 나와 카키나미 씨가 훑어보면서 적절하게 가필 수정했다. 매년 판에 박힌 듯이 되고 있는 대학의 정기간행물의 존재의의는 때때로 애매하지만, 이렇게 젊은이들의 뜻뜻한 공헌에 의해 정기간행물이 충실해지고 또한 신진들에게 인센티브가 되는 것은 실로 이상적이다. 여러분의 참가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